

개신교 예배 선언*

A Protestant Worship Manifesto

제임스 F. 화이트

(1932-2004)

(번역: 주낙현 신부)

말씀과 성사에 관한 새로운 개혁이 북미 개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운동이 주목받지 못한 탓에 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양상은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 매우 잘 알려진 전례 개혁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글의 목적은 이 운동의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다. 비록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신교 예배 개혁의 목표들이 어떤 교감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확신에서다.

바티칸 2차 공의회 [전례 헌장]과 같은 문서가 없는 탓에, 개신교의 이러한 교감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전례 헌장]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을 위한 의제를 마련해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례 헌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해당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의 많은 개혁들은 1963년 그 문서가 내다보던 것에서 한참이나 멀리 진행되었다.

내가 관심하는 바는 다양한 형태의 전례 분포 안에서 그 중앙에 위치한 교회 전통들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성공회와 루터교회 (전례적 우파)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잘 알려져 있다. 전례적 좌파 (퀘이커, 오순절, 특히 자유 교회 전통) 안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 이 글은 James F. White, "A Protestant Worship Manifesto," *The Christian Century* (Jan. 27, 1982), p. 82. 의 온전한 번역이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통이 다른 교회들을 일반화하는 일은 어렵다. 내 관심은 전례적 중앙파에 있다. 즉 개혁 교회, 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그리고 몇몇 자유 교회 전통의 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다. 북미 개신교 내의 전례적 중앙파를 정의하는, 거치마나 편리한 방법은 예식서를 여러 성사의 규범으로 간주하면서도, 보통 주일 예배에서 그 예식서의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는 교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는 다양한 목회자 그룹과 학자들 사이에서 좀더 명백해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어떤 교감적인 동의를 분명히 해 볼 생각이다. 몇몇 걸출한 지도자들을 들자면 윌리엄 윌리몬, 로렌스 스투키, 호레이스 알렌, 아를로 두바, 덕 아담스, 그리고 키스 왓킨스 등일 것이다. 그보다 작은 그룹들은 신개혁파나 신웨슬리안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룹들의 차이는 개신교 예배의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에 비교한다면 그리 크지 않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바꿔서 꼭 호감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66퍼센트가 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최근의 전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어느 인간의 행동처럼, 예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예배에 대한 사려깊고 조심스럽게 계획된 변화는 미국 개신교에서는 새로운 현상이다. 마치 바티칸 2차 공의회 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과 같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건전한 사목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이유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이러한 변화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변화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변화들에 대한 판단 기준들은 필수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서 어떤 것이 증진되어야 한다. 어쨌든 전례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주요한 문제들에 관한 주목할만 동의가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이 운동을 "말씀과 성사의 개혁"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이것은 분명 예배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재의 행위들을 개혁하려는 노력이다. 혹은 이 운동을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예배의 쇄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새로운 것들의 많은 부분은 매우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예배 안에서 오랜 동안 잠복하고 있던 많은 행위들이 지금와서 적절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다른 용어로 예배의 재활성화 혹은 예배의 구조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현재의 이 운동은 이러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며, 그 이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바를 되도록 간명하게 12가지 개혁 주장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다만 표어로 만들어 본다. 각각의 개혁 주장은 기술적(descriptive)이라기 보다는 규범적(normative)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가 있는 것 같다.

1. 정의를 위한 투쟁에 교회가 독특하게 공헌하는 길이 곧 예배라는 이해에 비추어, 예배가 구성되어야 한다.

개신교는 종종 설교를 예언자적 사목직으로 여기면서, 예배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사제적 역할로 평가절하했다. 마치 사목의 이러한 두 면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는 전체 예배 (설교를 포함하여)는 교회 정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교회에서 가장 오래도록 쓰인 방법이다. 이것이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예배의 부산물이라 할 지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그 어떤 교회의 활동보다도 정의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강화시킨다. (나의 논문 "예배의 언어들: 전례 안의 성차별주의를 넘어서" 1978년 12월 13일, 그리고 "예배의 행동들: 전례 안의 성차별주의를 넘어서" 1980년 5월 7일을 보라). 불행하게도, 같은 말씀과 행동들과 역할들은 정의뿐만 아니라 불의도 신장시킬 수 있다. 예배가 나이와 인종과 성을 포용하는 것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한, 예배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성사가 설교보다 예언적일 때가 많다. 세례는 오랜동안 평등의 성사로 이해했다(갈라 3:27-28). 여성 성직 서품은 본질적으로 세례 신학의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의 사제직에는 안된단 말인가? 코이노니아 혹은 주님의 만찬을 통한 사귄(1고린 10:16-17)이 더 마련될 수록, 악과 타협하지 않는 성찬례에 대해서 더 말해야 한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여러분이 마귀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1고린 10:21). 성찬례가 마련해주고 있는 하느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은 어떤 인간의 사회적 개혁안보다 더욱 급진적이다.

정의에 대한 예배의 가장 큰 기여는 그 집요함, 즉 "거기에 매달리는" 능력에 있다. 예배의 필요성은 녹슬거나 쓸모없이 되는 일이 전혀 없이, 악에 대한 투쟁처럼, 늘 되풀이된다.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기 주심(God's self-giving)을 매주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을 지탱해 줄 투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줄 수 있게 된다.

2.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은 파스카(부활 사건)에 있다는 점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울려나야 한다.

부활 사건에 기반한 세례는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시작이요, 부활의 기쁨은 그리스도교 장례식에서도 울려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느님의 자기 주심의 한 형식으로, 그 안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시 제공되는 것이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구원 역사의 사건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중세말과 종교개혁기를 덮었던 참회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신정통주의가 지배했던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경험하기보다는 꾸지

람을 들으러 교회에 가는 일이 빈번하다.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예배는 때로, 예배란 우선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관한 것이지, 하느님의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예배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내향적이며, 주관적인 접근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사소한 실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잊게 만든다. 우리는 기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선포해야 한다. 부활을 선포하고, 이를 다시 살아가는 일은 한 주 한 주 일년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

3. 개신교 예배에서 성서의 중심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교회 예배에는 희한한 연결 고리가 있다. 이들이 예배에서 성서를 사용하는 태도는 "자기들 편한대로" 범주에 속한다. 성서는 수천의 개신교 교회 예배에서 단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이러한 성서 사용은 성서를 그리스도교 예배의 원천이 아니라, 선택적인 자료로 만들고 만든다. 성서가 예배에서 설교의 본문으로 읽혀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읽혀졌다는 점이 잊혀지고 말았다. 설교는 성서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성실한 주석으로 뒤따라 오는 것이다. 새로운 개혁들은 매주 3개의 독서와 거기에 시편을 덧붙여 노래할 것을 권고한다. 이 부분에서 개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대체로 에큐메니칼 성서정과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에 없이 수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성서정과에 바탕하여 주일 예배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성공회나 루터교회 같은 전례적 우파 안에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성서정과 사용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역자주: 꼭 그렇지만은 않다. 두 교회 전통은 나름대로 성서정과 전통을 갖고 있다가, 1970년대에 그 내용과 운용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했을 뿐이다.) 최근 나는 인디애나 주의 어느 시골 지역의 목회자 연합에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나자렛 교회 혹은 형제들의 교회(*Church of Brethren*) 출신 설교자들이니 성서정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에 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성서 정과에 관한 것이었다!

성서정과의 발견은 설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설교자만의 개인적인 성서 구절집에 교회를 복종시키는 기묘한 형태의 억압이 있었다. 여기에는 구약성서 대부분과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의식화를 통하여 교회는 성서 전체를 만나게 되었다. 성서성과의 사용은 화제 중심 혹은 주제 중심의 설교에서 다시 주해에 기반한 설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성서정과의 사용을 통해 많은 설교자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생각이나, 좋은 충고, 그리고 리더스-다이제스트식 예화보다는 성서정과에 따라 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되었다.

4. 그리스도교 예배의 주요 구조 가운데 하나인 시간의 중요성이 반드시 재발견되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은 좀더 풍요로운 교회력 사용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성서정과 사용에서 얻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교회력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기본 문서이다. 교회력은 해당 주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에큐메니칼 성서정과를 사용하는 이들은 8천만 이상의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교회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님의 세례, 주님의 변모, 모든 성인의 날 등과 같은 축일을 추가하여 교회 축일이 거의 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축일들은 세속적인 행사가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론적 사건들이었다. 동시에 세계 성찬 주일과 종교개혁기념일은 다른 축일이 늘어나면서 그 위치가 축소되었다.(역자주: 세계 성찬 주일은 미국 장로교에서 시작되어 개신교계에 퍼진 것으로, 이 날만이라도 성찬례를 드리자는 취지였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의 발견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성주간이다. 극적인 요소는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다른 것을 덧붙일 것도 없이, 성주간은 그리스도교 드라마의 절정이다. 성주간은 이제 수천이 넘는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없었던 일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늘 오전 11시에 드리던 주일의 구조가 특별한 축일 전야 예배를 통해서 깨뜨려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교회력이 일반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성탄 전야, 재의 수요일, 성목요일, 부활 전야 등이 그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례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요한 매개가 된 것이다.

5. 예배에 관한 모든 개혁은 반드시 에큐메니칼하게 이뤄져야 한다.

에큐메니칼 성서정과와 공동 교회력의 광범위한 사용은 최근 교회 일치 운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이를 위해서 어떤 직책이나 위원회를 세워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니다. 미국 전역의 시골과 도시의 목회자들이 예배를 위해 준비된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 그저 모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들이 전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교회 일치 운동이다.

전례 예식들의 수렴 현상은 그리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교회 전통들이 새로운 예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그 차이들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게 보인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버나트 쿡(Bernard Cooke)은 새로운 연합 감리교의 성찬 예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감리교 신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적인 예식을 스스로에게 권하고 있다.

예배에 관하여 우리를 갈라놓았던 신학적 문제들이 제거되고 있다. 어느 수사는 예일 대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친다. 로마 가톨릭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개신교 교과서로 예

배를 배운다. 가끔 이런 의문이 든다. "예배를 가르치면 되지 왜 따로 에큐메니즘을 가르치는가?" 오히려 신학적 차이들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 전통 안에서 일어나는게 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선도적인 로마 가톨릭 전례학자가 유아 세례가 "나쁘지만은 않은 이상 현상"이라고 말할 때, 로마에서 나온 지침은 그 관습을 옹호한다. 그러나 모든 전통 - 정교회에서 퀘이커에 이르기까지 - 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이용하여 전례 신학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다. 식별력을 가지고 빌려온 결과는 대단한 것이다. 동방 교회의 예식이나 관습, 그리스 정교회의 개념들마저도 서방 그리스도교에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통의 가치를 확신하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래야 우리 전통을 다른 전통에 제공할 수 있다.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은 전통은 그저 사라지곤 한다. 잘 연구하고 분명히 한 자료들이 있는 처지에 그런 것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6. 그리스도교의 입교식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현재 예배와 복음화의 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어떤 공동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즉 입교는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절반 부족한 형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합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입교 그 자체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전례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는 타협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아마도 전례학자 대부분은 현행 견진성사의 행태들을 그만두게 하고, 분명히 "견진"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견진성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다. 이런 제안들로 위태롭게 될 것들이다. 그 때문에 연합 감리교 신자, 루터교 신자, 성공회 신자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이 용어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견진이나 유아들의 영성체가 나이를 불문하고 행해지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더이상 이러한 행동

이 우리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느님 뜻대로 진행되게 해야 한다. 기묘한 형태의 나이 차별 - 즉 어린이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까지는 끼워주지 않겠다는 편견 - 은 이미 신학적 근거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 교회들은 또한 인간의 발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평생을 걸쳐 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례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확인" "재확인" 혹은 "갱신"의 예식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로마 가톨릭의 새로운 "성인 그리스도인 입교 예식"(RCIA)는 한 성인의 회심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눠진 경험이라는 점을 드러내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7. 예배 개혁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주일 예배에 성찬례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곳(그리스도 교회 [제자들의 교회])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는 여러 루터 교회나 성공회도 아직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 개신교에서 일어난 비신성화에 따라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시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경험으로 볼 때, 매주 성찬례의 가치에 대한 증언과 성서적 연구와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들은 주일 성찬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달에 겨우 한번 하는 형태의 성찬례 행태를 그대로 주일 성찬례로 바꾼다면, 이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 성찬례 거행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발전시키기까지는 성찬례를 빈번히 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목자는 예식들이 갖는 모든 면들에서 그 표징의 가치들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필요하다. 복잡하기만한 전례 지침(루브릭)에 의존할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진정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배려해야 할 두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교 교리의 중심 선언인 성찬 기도는 기도를 통한 신실한 선언으로 재발견되어야 한다. 바티칸 2차 공의회 이전의 로마 가톨릭 예식이나 개신교 예식은 이 점에서 한심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 또한 성체와 보혈을 나누는 방법들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 모여서 일어서거나, 무릎 꿇거나 앉도록 해야 한다. 그저 회중석에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여 행동할까를 발견해야 한다.

8. 이른바 "여러 성사들"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신교 안에서는 세례-견진과 성찬례 이외에 이른바 성사라 불리는 상징적 행동에 대해 교감된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감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대부분에서 보면 그런 적이 있었다. 어떤 상징적 행동들은 공동체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하도록 한다.

"고백성사" 혹은 "참회"라고 불린 적이 있는 화해 성사는 여러 성사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결국 우리는 4개월에 한번씩 혹은 한달에 한번씩 공적인 화해의 성사를 볼 수 있어야 하리라. 공적인 치유 예배 역시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성사로 베풀어야 할 것이다. 서품(안수) 또한 성사로 봐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사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장례식은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기 주심을 증언하는 특별한 사건이다. 지금은 그리스도교의 결혼과 그리스도교 장례식의 특성에 관해서 강조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중요한 통과례의 사건들은 교회 안에서 펼쳐시는 하느님의 행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9. 음악은 그 사목적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교인들의 온전한 참여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 음악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분석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난다. 대체로 무덤덤한 예배를 좀 기분 좋게 만들어보려는 계산에서 나온 공연용 음악에서, 그저 어정쩡한 순간이나 그 사이 사이를 떼우려는 듯한 지루한 음악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전례적 음악"이라는 생각에서 "음악적 전례"라는 생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예배에서 성가대 합창이 전해주는 보석이나, 그 안에 던져놓은 악기 연주라라기 보다는, 예배와 조화되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신교 예배에서 대부분의 성가대 합창 음악은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에 적절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예배의 조화로운 요소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만 공연이나 배경 음악에 불과하다. 새로운 성서정과는 설교자처럼 음악가에게도 노래를 통한 말씀과 읽혀지는 말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 음악"(sacred music)에 대비하여, "사목적 음악"은 교인 전체가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그 예배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은 성가대의 합창 음악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음악은 언제나 교인들이 부르는 성가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때에 따라서 성음악 콘서트 같은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 예배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음악가이자 작가인 칼튼 영(Carton Young)이 잘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성가대를 마치 교인들 전체인 양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게 아니라, 반대로 교인들 전체를 성가대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성가와 시편송, 예배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의 선구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는 시편의 재발견이다.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시편 교독은 예배에서 그 지루하기로 따지면 사목 기도와 겨루는 형편이다. 시편을 노래할 때만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영터리 운문체로 읽는 것보다는 시편 자체를 노래하는 방법이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가대 혹은 선창자 그리고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우리는 성가대가 별로 쓸모가 없거나, 예배 마지막 성가를 부르는 데나 적합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시편의 교송이나 교창이 예배에 훨씬 조화를 이룬다. 특별한 봉헌을 하는 양 성가대만 합창을 부를 일이 아니다. 시편은 그 지극한 개인 기도의 맥락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 행동을 증언하며 이로써 참여에 대한 중요한 차원을 덧붙여준다.

10.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공간과 성물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례 거행의 질을 향상하려면, 많은 경우 공간의 재배치가 그 첫 수순이 되어야 한다. 가시화되지 않은 채로는 다양한 행동들의 상징적 가치들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애초에 없다. 영국의 신학자인 J.A.T. 로빈슨(J.A.T. Robinson)의 비관적인 금언인 "결국 건축이 이긴다"는 말은 늘 맞는 말은 아니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여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그렇게 설계되는 교회 건축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다. 이런 교회에서는 다음 20년 후에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성육신하신 하느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공간은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전례 거행의 질을 향상하려면, 사람들의 시각적, 청각적, 동적 감각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성, 실용성, 융통성, 그리고 친밀성이 예배를 위해 설계된 공간의 특징이어야 한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예배 행위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사려 깊은 고찰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예배를 위한 최적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사탕 접시처럼 생긴 세례대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례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세례대는 모든 교인들이 그 씻는 행위를 듣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례대는 가장 여성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세례대가 수수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개신교에서 주님의 식탁은 벽에서 떨어져 나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대-식탁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큰 진전이 될 것이다. 제대-식탁에 성서를 펼쳐 놓은 걸 본다면, 사람들은 금새 그게 예배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11. 예배의 개혁은 신학생들과 성직자들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기능을 통하여 생각하도록 가르치는데 더욱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전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행동인 공동체 예배에 대한 진중한 성찰과 연구가 없이 신학교를 마치는지를 알면 놀라 자빠질 것이다. 이런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이 없고, 이를 찾으려 하지 않는 이들이다. 개신교 신학교들은 지난 10년 동안 예배 교육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학교들 가운데 5분의 1에서는 신학생들에 대한 예배 교육이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마도 이제는 성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고를 해줘야 할런지 모르겠다. 사목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바드보다는 예일에 지원하는게 낫고, 웨슬리보다는 가렛-에반젤리칼에 지원하는게 낫다고 말이다. 신학교에서 예배 교육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교수진을 보면 된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육의 간극이 아직 메꿔지지 않은채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지금 계속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출판물로 된 자료가 많다. 예배에 관한 도서 시장이 지난 몇년 동안 주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시청각 자료들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영상이나 비디오 테이프, 디스크 등으로 자료를 만들만한 상상력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 분야에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은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다.

당연하거니와, 성직자들은 신자들과 함께 예배 분야를 따라 잡아야 한다. 예배를 가르치는 과목이 학부 종교학과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그리스도교를 소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해 준다.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 체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다. 예배 워크숍에서는 신자들의 수가 성직자들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예배를 모르는 성직자들은 이런 신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전례의 변화를 거부하곤 한다. 배움을 통해서만 이러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다.

12. 마지막으로, 전례의 쇄신은 예배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복미 그리스도교의 뿌리와 가치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전례 쇄신은 그저 창틀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와 교회 일치, 그리고 전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와 그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강한 도전이다. 전례 쇄신은 교회 생활의 모든 면들과 연관되어 그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전례 쇄신은 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존 질서의 보존 (satus quo)과 공존할 수 없다. 보수주의자들의 확신과 자유주의자들의 부정 모두와 갈등하는 것이다. 이 두 진영은 모두 성서와 역사적 신앙에 대한 부적절한 성찰이라 할 것이다.

"전례적 순환" ("liturgical circle")은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무엇을 하고 말하는가를 관찰하고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자료들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의미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전례의 개

혁으로 나아간다. 이 전례적 순환은 실천과 이론이 하나가 되는 전례 신학을 위한 방법론을 마련해 준다.

그러므로 전례 쇄신은 미국 개신교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우리보다 좀더 자세하고 초연한 태도로 개신교의 문제점을 구별해 내겠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로 감격하고 있다.

Original Title: James F. White, "A Protestant Worship Manifesto"

Copyright © 1982 by the Christian Century. Translated by Nak-Hyon Joo in Korean and reprinted by permission from the January 27, 1982, issue of the Christian Century. Subscriptions: \$49/yr. from P.O. Box 1941, Marion, OH 43306. (800) 208-4097.

원문: James F. White, "A Protestant Worship Manifesto,"

in *The Christian Century* (Jan. 27, 1982), p. 82.

번역: 주낙현 신부 2007-09-20- rev.1

위치: 성공회 전례학 포럼 <http://liturgy.skhcafe.org>